

/·/음에 관하여

- 특히 영어 음성교육의 측면에서 -

김 순 택

<目次>

1. 서론	2.2.2. /·/음과 관련된 그 외의 견해
2. 본론	2.2.3. 한국어 /·/음과 영어 /o/, /ɔ/, /ɒ/음의 비교
2.1. 한국어 /·/음	3. 영어 음성교육을 위하여
2.1.1. /·/음에 대한 견해 (1)	3.1. 영어 음성교육을 위한 new model 설정
2.1.2. /·/음에 대한 견해 (2)	4. 결론
2.1.3. 위와 관련된 모음 도표	참고 문헌
2.2. 영어 /o/, /ɔ/, /ɒ/음	Summary
2.2.1. 영어의 /o/음과 그와 인접된 음	

1. 서론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발음 교육을 실시하는데 정확한 발음을 실천시키려고만 노력하여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speech communication**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일로 다시 한번 문제가 제기되어 가고 있다.

일상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하는 사람들에게 **practical purpose**로서 언어 수행은 모든 음성의 **variants**를 **master**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target language**의 정확한 발음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모든 **variants**를 습득할 필요성이 없다는 극단적인 가설을 세워놓고 본 논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여 가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어 교사나 또는 학습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발음 연습에 힘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speech**는 의사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prime medium**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새로운 **model of teaching pronunciation**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 /·/ 음을 현실적 음으로 인정하고,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적 model 설정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다.

1. /·/ 음이 영어의 대응되는 모음이 어떤 것이 있는가?
2. /·/ 음과 영어의 그것과의 음역 (space)이 어떻게 될 것인가?
3. 이 두 언어음의 실질적인 수행에 있어서, 어떤 원칙 (model)이 추출될 것인가?

이상의 여러가지 측면을 가지고 고찰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을 두기로 한다.

2. 본 론

2.1. 한국어 /·/ 음

한국어의 /·/ 음은 이미 소실된지 오랜 것이지만, 즉 중세국어의 흔적으로만이 가치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직도 그 음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있음은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 국어학자들이 이 음에 대해서 보고있는 것들을 간추려서 알아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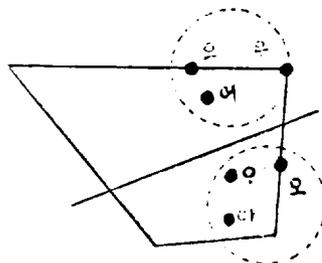
2.1.1. /·/ 음에 대한 견해 (1)

따라서 ㅁ음은 후설모음이라고 이미 舌形과 聲의 深淺에서 규정하고 다시 與·同계 모음에서 아 오음과 동류라는 결론…… 즉 ㅁ음은 후설모음이고 아 오의 間舌이라 단언…… 1)

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같은 책에서 최현배의 한글갈 (497)의 것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첨가하고 있다.

/·/와 그 소리남이 비슷하다고 한 소리가 둘이 있으니 곧 ㅁ와 ㅂ이다. /·/는 점히 ㅁ, ㅂ의 사이 소리라 하겠다.

그런데 위 두 학자의 생각에서 다시 최현배는 /·/ 소리가 ㅁ와 가깝다는 데는 일치하지 않은 의견을 펼치고 있다. 다음에 위 문제를 가지고 그린 모음 도표가 제시되고 있다.



1) 이승녕, 조선어음운본연구, 울유문화사, p. 31

2.1.2 /·/ 음에 대한 견해 (2)

(1) 원본 훈민정음을 못본 시대²⁾

- 주시경 |, -의 합음
- 이능화 ㅏ, ㅑ, -ㅓ, -ㅕ, 의 간음
- 小倉進平 ㅏ, -ㅓ, 의 간음
- 이극노 ㅑ는 ㅓ음이라.

(2) 원본 훈민정음을 본 시대

- 최현배 ㅑ는 ㅓ음이라.
- 河野六郎 ㅑ는 ㅏ음이라. (ㅏ는 아, 오
의 간음)
- 이승녕 ㅑ는 ㅏ, -ㅓ의 간음

위에서 보듯이 /·/는 아, 오의 간음이라는 설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음의 소실 시기는 17세기에 동요가 있었으며, 18세기에 와서 소실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주도 방언에 아직도 그 음가가 유지된다고 하고 있다.

2.1.3. 위와 관련된 모음 도표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 음은 이미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어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인들이 아직도 발설하고 있다는 현실적 가정 밑에서, 다시한번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모음 도표를 찾아 보기로 한다.³⁾

			입술		앞	가운데	뒤	
훈 소 리	달 울 소 리	호	(기, ㅓ)					
	반 달 울 소 리		(기, ㅓ)					
	반 열 울 소 리							
	열 울 소 리	민						

한 때에 두 자리가 움직여서 나는 소리는 제각각 그 때인 두 자리에 다 같이 쓰되, 주장이 못 되는 자리에 것은 괄호를 () 씌.

2) 이승녕. 고어의 음운과 문법. 문화당. p.34.

3) 이극노. 조선어음성학. 아문각. p.41.

여기에서 본다면, /·/음이 모음 도표상에서 “반열홀소리”, “혀가운데 뒤쪽”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는 舌縮而聲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혀를 오그리어서 소리가 웅성 깊으며, /·/음가는 이제 제주 방언의 그 음치와 일치하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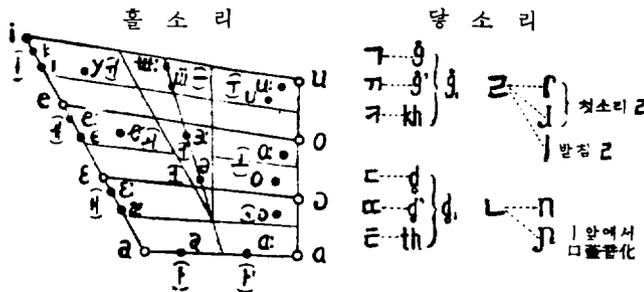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른 모음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도표를 보이고 있다.

1)

		舌 位 別				
		前 位 音	中 位 音	後 位 音		
腭 角 別	小 角 音	ㅣ	一	丄	高 舌 音	舌 高 別
	中 角 音	ㄱ	ㄴ	ㄴ	平 舌 音	
	大 角 音	ㄴ	ㄷ	ㄷ	低 舌 音	
		廣 唇 音	平 唇 音	圓 唇 音		
		唇 形 別				

5)

2) 조선 말 소리와 萬國 音聲 記號와의 對照 6)



4) 이극노, 조선어음성학. 아문각. p.18.

5) 위 책. p.19.

6) 위 책. p.44

ㅏ a, ㅓ	ㅑ ju, ju	ㅕ ja, je	ㅍ b	ㅓ-m
ㅓ ja, je	-ㅓ, ㅓ	ㅑ je, je	ㅍ-ph	
ㅓ i, ㅓ	ㅓ i, i	ㅑ wa, we	ㅑ j	ㅓ-j
ㅓ ja, je	ㅓ a, e	ㅑ wa, we	ㅑ-j'	
ㅓ o, a	ㅑ e, e'	ㅓ wa, we	ㅑ-ch	
ㅑ jo, ja	ㅓ e, e'	ㅑ we, we'	ㅑ-s	ㅓ-h
ㅓ u, u	ㅓ y, y'		ㅑ-s'	

ㅓ-j 말점 ㅓ
 ㅓ-j' 끝소리 앞의 ㅓ
 ㅑ-ch 끝소리 앞에는 죽어짐

3) 朝鮮語音과 萬國音聲記號와의 對照 7)

基準音				長音		
I. 母音 (홀소리)						
前母音						
ㅣ	i	밀	小麥	i:	밀	蠟
ㅑ	y	위다	裂, 跳	y:	쉬다	體, 腐
ㅓ	e	게	他, 彼處	e:	게	蠶
ㅑ	ϕ	되다	爲, 化	oe:	되다	固, 困
ㅓ	æ	새	薪	æ:	새	鳥
ㅓ	á	말	馬	a:	말	言
後母音						
ㅓ	u	굴	牡蠣	u:	굴	窟
ㅓ	o	돌	蒼	o:	돌	石
(*)	o	ㅓ식(銜)	[濟州方言]			
中母音						
ㅓ	ü	뜰	庭	ü:	뜰	野
(†)	3:	없다	無 [京畿方言]			
ㅓ	o	벌	干瀉地, 件	3:	벌	蜂

2.2. 영어 /o/, /ɔ/, /D/ 음

앞에서 한국어의 /·/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알아 보았다. 특히 한국어에 있어서는 오와 아의 중간음으로 규정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영어의 그것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관찰을 하여보기로 하자.

7) 앞 책. p.42.

출고 “한·영어 모음도의 비교”에서 필자는 한국어의 /오/에 대응하는 음성은 /o/와 /ɔ/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단정지었던 일이 있다.⁸⁾ 그러나 한국어의 /·/와의 영어의 어느 음이 대응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영어의 서로 근접되어 있는 모음인 /o/, /ɔ/, /ɒ/들을 서로 연관하여 고찰하여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한국어의 /·/와 가장 접근된 영어의 /o/, /ɔ/, /ɒ/와의 어느 것이 해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찰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위 세가지 음을 비교함으로써 우선 작은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2.2.1. 영어의 /o/음과 그와 인접된 음

양동휘는 Kenyon의 모음도를 인용 하였는데, /o/음을 mid, back, tense, round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mid쪽으로 너무 올라간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져 /·/음과 접근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⁹⁾ 그리고 Bronstein에서도 상기한 양동휘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¹⁰⁾

Ladefoged인 경우는 /o/를 /ɔ/와 동일한 음역에 넣어서 다루고 있다.¹¹⁾ Gimson인 경우에는 /ɒ/와 비교하면서 /o/를 서로 연관된 것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보기를 다음에 들어 보기로 한다.¹²⁾

/ɒ/

Examples — o — dock, dog, holiday, sorry, gone

a — was, what, swan, want, watch, quality

ou, ow — cough, trough, Gloucester, knowledge

au — because, sausage, laurel, Austria, Australia, cauliflower

(Note : (ɒ/in 'yacht' /jɒt.)

Compare /ɒ/, /ɒ/ — lodge, large; cot, cart; cough, calf; impossible, impassable

/ɒ/, /ɔ/ — cod, cord; don, dawn; stock, stalk

[ɪ] *following* — doll, involve, revolver, solve

그러니까 /ɒ/는 /o/ 또는 /ɔ/보다 short vowel이며, open lip-rounding 그리고 full back of tongue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에 이에 따른 variants를 그 도표와 더불어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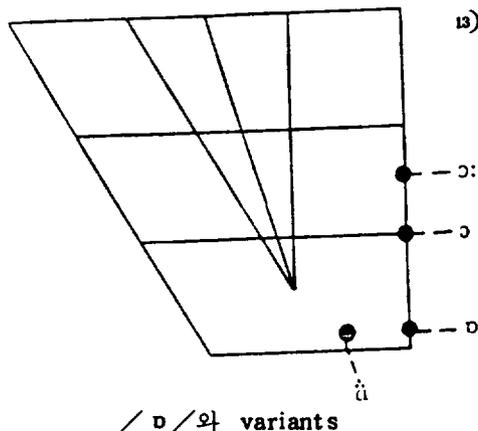
8) 김순택 (1980) p.111.

9) 양동휘 (1967) p.54.

10) Bronstein (1960) pp.137 ~ 141.

11) Ladefoged (1975) p.34.

12) Gimson (1981) pp.114 ~ 118.



13) 또한 Gimson은 /ɒ/에서 나오는 variants에 대해서,

(1) /ɒ/ + /f, θ, s/인 경우에는 /ɔ/와 함께 alternative pronunciation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영국의 RP와 southern England에서, 그리고 젊은 세층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것이라 한다.

보기.

off, cloth, cross

(2) 이것은 London speech (Cockney)에서 /ɒ/와 /ɔ:/를 번갈아 가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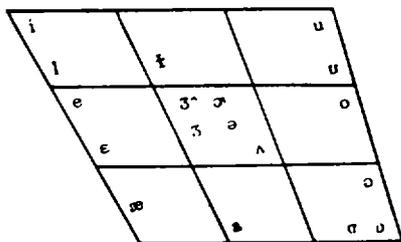
보기.

dog, gone, Australia, fault, sault

이상에서 보았듯이, /o/, /ɔ/, /ɒ/등은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을 짓고 있다고 보아, 과히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2.2.2. /o/음과 관련된 그 외의 견해

상기한 /o/와 관련된 영어의 음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찰하여 본다면 low back lax로 되어 있음을 다음에서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음성학자들의 것을 다음에서 알아 본다면, 대개가 /o/와 가장 밀접한 음으로써 /ɒ/가 설정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다.



13) 앞 책. (1981) p.115.

14) Kenyon & Knott. *A Pronouncing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1951) p. xiii.

i	i	u
l		u
e	ə	o
ε	Λ	
æ	ɑ	ɔ
a	ɑ	ɒ

15)

i					u
l					u
e		ɜ	ɜ		o
ε		ə	ə	Λ	
					ɔ
æ	a			ɑ	ɒ

16)

위의 세가지 단모음도를 통하여 본다면, 영어의 /ɒ/는 /o/, /ɔ/보다 가장 밑으로 설정되어 있는 음으로써, 한국어의 /ɒ/와 유사한 음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2.2.1.에서 고찰하였던 /ɒ/는 다음에서 그 분포상황을 살펴봄으로서 더 확실하여지리라 믿는다.

2.2.3. 한국어 /ɒ/음과 영어 /o/, /ɔ/, /ɒ/음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한국어 /ɒ/와 영어의 /o/, /ɔ/, /ɒ/들을 대조하여 보고, 그에 해당하는 allophones를 찾아 넣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 한국어 /ɒ/음의 분포

phoneme	allophone	phonetic description	environment	examples
/ɒ/	/o/	voiced rounded mid back	# — C C — V V — C C — C	ok, gem taroi, separately piokhan, fertile nogojiri, skylark

15) K.L.Pike. *Phonemics* (1964) p.5.

16) C.K. Thomas. *Phonetics of American English*. (1958) p.128.

/ɔ/	voiced rounded low back	V — V C — # C — C	ioi, this cucumber cho, candle kɔθ ta, be similar
/ɔ̄/	voiced rounded full low back	C — C C — V	m.l, horse k.ul, autumn

(2) 영어 /o/, /ɔ/, /ɒ/음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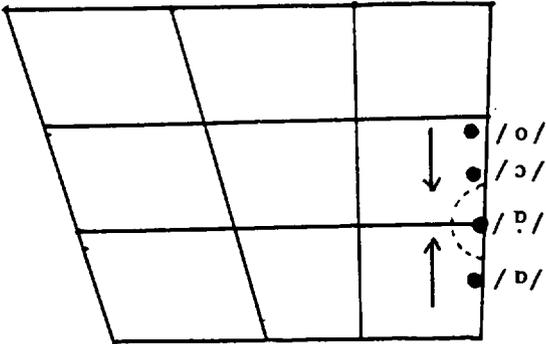
phoneme	allophone	phonetic description	environment	examples
/o/	/ɔ/	voiced rounded mid back	# — C C — V C — #	ɔ:t, ought kɔ:t, caught sɔ:, saw
/ɔ/	/ɔ/	voiced rounded low back	# — C	ɔfis, office
/ɒ/	/ɒ/	voiced rounded full low back	C — C C — C	lɒt, lot kɒd, cod dɒn, don stɒk, stock

따라서 한국어 /·/음과 영어의 /o/, /ɔ/, /ɒ/음을 그분포 상황을 대비하여 유사성(similarity)을 논하여 본다면, 영어와 한국어의 그것들이 음성적 환경(phonetic environment)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하면, # — C, C — V, C — C, V — V, V — # 등의 분포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분포상황에서는 난이도가 거의 없음을 곧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phonetic description 인 경우에 rounded mid back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음적 영역(articulatory area)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의 그것들이 /ɒ/가 가장 흡사하므로 그에대한 음성표기를 새로이 만들어 내어 이 문제를 귀납시켜 본다.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음성에 대한 표기는 /ɒ/라고 여기고 있다. 즉 위의 대비분석에서 나타난 것을 근거로하여, /ɒ/음에다 한국어의 /·/음을 밑에 첨가하여 불임으로써, 이 양 음성의 음소를 성립시켜보는 것이다.



상술한대로 /ɒ/음을 성립시키므로써, 그 유사성과 동일성을 먼저 가설적으로 설정하여 놓고 다음을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다시말하면, /ɒ/음을 인정하게 되면 한국인이 이 음을 습득하는데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 음역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절충한 것으로서, 왼쪽 도표와 같이 설정하여 본다.

3. 영어 음성교육을 위하여

영어 음성교육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은 외국어 습득, 특히 **speech communication**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물론 과거에 **phonetic method**가 있었으나, 그것은 음성교육에 적극적인 교수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2.2.3.에서 가설적으로 설정하여 본 /ɒ/음을 우리들은 상기하여 보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어 음성 교육을 습득시킨다면, 훌륭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말하면 영국음이나 미국음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ɒ/음을 정확하게 발성케 한다면 영어의 그 모음 연습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들리는 **feeling**이 좋아질 것이며, 또한 한국인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전통문법에 의한 방법으로만 영어교육이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어 습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에 있어서 너무나 한심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 교육의 새로운 **model of teaching pronunciation for foreigners**를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론에서 말했듯이, 가설적 새로운 **model**을 한국어 /ɒ/음과 관련된 영어의 발음 습득 방법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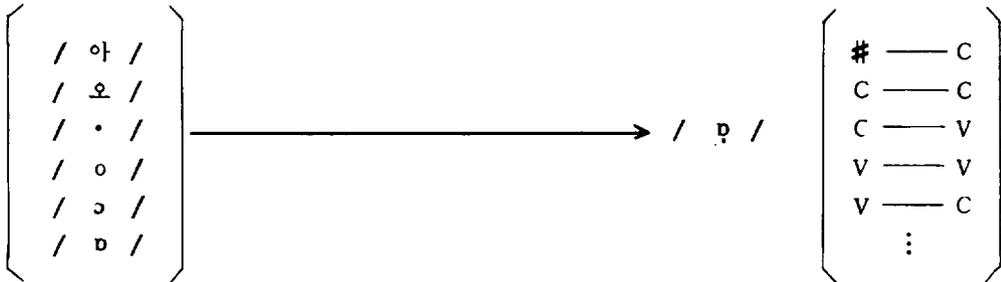
3.1. 영어 음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Model 설정

지금까지 필자는 한국어 /ɒ/음을 발음하여, 영어의 그것과 대응되는 /ɒ/음을 성립시키므로써 영어발음의 습득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다음과 같은 시안을 추출

하여 본다.

- (1) universal production of sound 라는 의미에서 이 시안은 가능하다.
- (2) 지금까지 논한대로 /p/음은 이미 기정된 것으로 본다.
- (3) 한국학생들은 상기한 발음을 발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4)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model 을 추출케 된다.

즉,



4. 결 론

필자는 한국어의 /•/음을 중심으로 하여, 영어와 대응되는 음성들과 대비하므로써 얻어진 /p/음을 영어 발음 습득과 교육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한국어 /•/음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현실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터이어서, 활용가치가 아직도 있다는 가설 아래, 영어의 그것과 혼합 응용하여 보면 /p/라는 음운 형태를 알게 되므로써 우리들은 이러한 model 들을 음운론적으로 더 확대하여 설정함으로써, 외국어를 습득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좋은 외국어 사용자가 될 것으로 상정된다.

끝으로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성 현상을 universal 한 측면에서 연구·검토되어져 가야 하리라 믿는다.

參 考 文 獻

- 김순택 (1980). “한·영어 모음도의 비교”, 영어영문학 제 2 집. 한국영어영문학회 제주지부
- 양동휘 (1967). 영어음성학·서울, 범한주식회사
- 이극노 (1947). 조선어음성학·서울, 아문각
- 이승녕 (1949). 조선어음운론연구, 제 1집 /·/음고, 서울, 을유문화사
- _____ (1949). 고어의 음운과 문법·서울, 문화당
- 최현배 (1941). 한글갈, 서울, 정음사
- Bronstein, A. J. (1960). *The Pronunciation of American English*,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Gimson, A.C. (1980).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3rd Ed.).
London. Edward Arnold, Ltd.
- Kenyon & Knott. (1951). *A Pronouncing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Springfield, Mass.,
G. & C. Merriam Company, Publishers.
- Ladefoged, P. (1975).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Pike, K. L. (1964). *Phonemics*.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 Thomas, C.K (1958). *Phonetics of American English*, New York, The Ronald Press.

— Summary —

On the Korean sound /·/
— In view of English sound education

Kim Soon-taek

In teaching a foreign languag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s the continual drilling of pronunciation to the students for the purpose of learning the target language. These days we are faced with the increased importance of using speech communi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in the international sphere.

Furthermore, listening and speaking problems are of prime concern to students in their learning endeavors. It is of utmost importance for the students of foreign languages to learn how to pronounce the sounds of the target language. But Korean students have trouble learning the various aspects of using a foreign language when trying to communicate with native speaker.

While emphasizing speech, as the prime medium, between the native speaker and Korean we have to establish the necessary models for teaching pronunciation in language learning. And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new model for pronunciation necessary to Korean students.

Obviously, there are some hypotheses and questions in presenting the new model which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similarity between the Korean sound /·/ and the approximate sound of English?
2. How to decide the space of the vowel sound?
3. How to limit the variations for production of sound in the two different languages?
4. What is the model to be used in teaching of this sound?

In conclusion, I will present a hypothetical model, phoneme / \mathfrak{D} / for the purpose of drilling Korean students producing English pronunciation as follows:

